

출판의 '품격' 높여주는 출판학 도서들

출판에 대한 이론적 조명...출판현장의 이슈는 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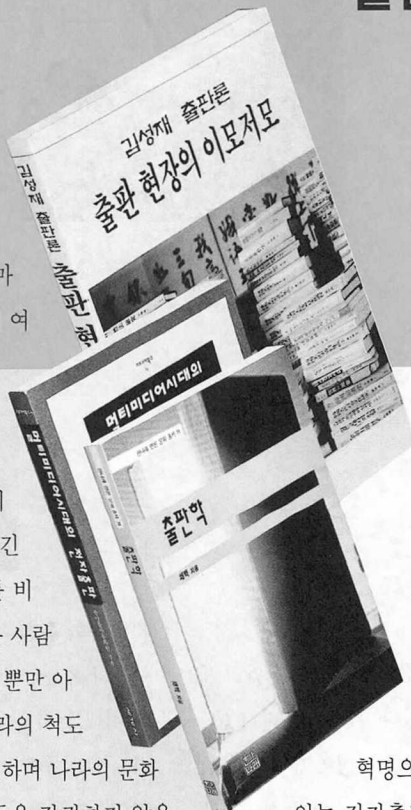
우리는 출판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이야기 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출판자에 대한 책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출판 현장의 이모저모》(일지사)는 우리 출판현장과 출판교육을 지켜온 일지사 김성재 사장의 혼이 담긴 출판론이다. 출판편집자를 비롯해 출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출판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척도라는 고전적인 명제를 인정하며 나라의 문화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강권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이다.

출판인과 출판자, 발행인과 발행자, 재쇄와 재판 등의 용어상의 올바른 사용부터, 존경스런 출판인, 편집자, 저자들의 이야기, 교정에서 저작권 문제, 도서의 유통과 홍보활동에 관한 글 등은 평생을 출판에 바친 저자에게서가 아니면 듣기 어려운 것들이다. 어떤 경우에도 할인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책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토론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책의 품위론의 정신만은 우리를 감동케 한다.

부산대 채백 교수의 《출판학》(한나래)은 지난 천년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구텐베르크 출판혁명이 가져온 출판세상의 어제와 오늘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해 준 역저다. 이미 89년은 사와 함께 발표한 《현대 출판학 원론》의 토대 위에 구성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최신자료를 보충했기에 이 시점에 출판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개설서다.

아쉬운 점은 한국 출판현장의 최대현안인 도



서정가계 문제를 포함한 출판재생산의 위기, 고반품률 등의 유통과 마케팅상의 과학성 부재문제, 디지털 출판

혁명으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전자출판과 저작권의 상황국면을 집중 부각시키거나 독립된 장으로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다음 판에는 언론학의 이론을 통해 출판의 과학적 이해의 장점과 함께 현장의 핵심적 주제들을 개설적 차원에서 정리해내는 난제를 풀어주기 기대한다.

중앙출판문화원이 엮은 《멀티미디어시대의 전자출판》(세계사)은 11명의 현직교수들이 집필해 전자출판에 대한 체계적인 개론서를 만들고자 기획된 책인 만큼 교육현장에서의 성과가 집대성됐다. 3장에 걸친 전자출판의 기초편, 6개장으로 된 제작실무, 마지막 3개장으로 된 출판정책관련 논문 등은 교육현장에서 정리된 사항들을 텍스트로 담아내 출판전공 학생들과 관련분야에서 일하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적어본다. 우리나라의 전자출판은 우리의 한글로 이뤄져야 하므로 옛글자를 포함한 한글·한자를 전자출판에서 구현하는 문제, 과학적 원리의 소개부분이 이 텍스트에 포함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HTML과 PDF 등을 다루면서 전자조판과 웹 언어상의 국

김중수 | 한울출판사 대표·성공회대 신방과 겸임교수

출판의 위기가 심심치 않게 논의되는 시점에서 '출판학' 관련도서가 나온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격동하는 출판현장을 지켜온 백전노장에서 신진 출판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출간된 책들은 출판학계에 이론적 초석을 놓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내의 표준으로 돼 있거나 돼가는 SGML과 XML에 대한 소개와 추세 등이 없어 원리의 이해와 올바른 전망 제시가 누락된 것 같아 아쉽다.

특히 필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제11장 출판유통의 정보화부분. 먼저 이 내용 자체가 적절치 않다. 어떤 전자출판의 정의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디지털화된 콘텐츠 자체를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 파는 문제를 다룬다면 그것과 관계된 부분을 다룰 수 있겠지만 이 장에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지도 않다. 이미 이 주제는 우리 출판계에 예민한 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그런데도 이 장에는 최근의 이런 글이나 논의의 새로운 내용 속에서 이미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맞았다, 틀렸다는 언급 없이 기존의 우리 출판계를 오도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다.

참고문헌에도 최근의 논의에 관한 문헌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학술적으로 무책임하다. 이 책 318쪽 둘째 줄의 "ISBN이 도서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에는 우리가 따른다"는 명백히 틀린 구절이다. ISBN은 서점에서 출발했고 애초 상업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출판학계가 어렵고 척박함 속에서도 겸손과 반성 그리고 페어플레이를 생각하게 하는 한 단면이 아닌가 한다. ●